

영암 왕인박사유적지에 '월출산아트브리지' 설치

영암 출신 작가 37명 참가...놀이체험 복합조형물로 제작 스테인레스봉 200개 수직 사용 월출산 봉우리 모양 형상

영암군은 왕인박사유적지에 월출산을 형상화한 '월출산 아트 브리지'가 설치·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아트 브리지'는 영암 출신 '월출미술인회' 작가 37명이 참여했다. '우리 동네 미술, 보go, 건go, 놀go 월출산'의 놀이체험 복합조형물로 영암의 대표적 명산인 월출산을 형상화했다.

스테인레스봉 200개를 수직으로 사용해 월출산의 우뚝 솟은 봉우리 모양으로 가로 21m, 최고높이 7.5m이다. 산을 오르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아치형의 S자 동선 브릿지의 바닥은 청자타일로 제작했다. 청자타일은 백토에 청자유약을 발라서 구워낸 것으로 64명의 주민들과 37명의 참여작가가 영암의 이야기를 600개의 부조 형태로 조각했다.

'아트 브리지'는 작품 위를 걸어보면서 영암의 문화적 이미지를 눈으로 보고 느끼며, 놀 수도 있는 생활 속의 복합 체험형 형태의 미술작품이 특징이다.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기획한 월출미술인회 정선휘 대표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의 주민들이 지역의 자긍심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아이스팩 재활용 '일석이조'

신안군은 재활용 없이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청정 신안 환경보호와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아이스팩 재활용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아이스팩 문제가 심각하다며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여 환경도 살리고 유통비용도 절감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청사내에 수거함 4개소를 마련하고 수거되는 아이스팩은 수산물 유통센터, 젓갈타운, 흑산홍어상가 등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신안군 전 부서 모든 직원들은 아이스팩 재활용에 동참하기 위해 가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청사까지 가지고 올 계획이다.

지도읍에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임모씨는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모아 준다면 해마다 수천개씩 사용하는 아이스팩 구입비용이 절감되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부분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가능하나 수거가 번거로워 그대로 버려지고 있으며 매립되면 자연 분해에 50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군에는 농수산물 유통업체 400여곳이 있어 다양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10만여개의 아이스팩이 사용되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목포시,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제공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이용 가능

목포시가 설 연휴(2.11~14)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추모·성묘객에게 개선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 명절 기간 관내 장사시설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용객을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추모서비스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 추석 기간 제공했던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해 음성메시지 및 동영상 등록 등 추모 기능이 다양화됐다. 또 자유롭게 차례음식을 선택하고 배치가 가능한 차례상 차림기능 등을 강화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가

보다 향상됐다. 시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추모의 집 시설 소개 영상 등록 및 고인의 안치 사진을 제공할 예정이다.

목포시내 사설 봉안당은 오는 2월 10일까지 안치 사진 제공 서비스를 접수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치 모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많은 추모객이 봉안당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추모객들께서는 가능하면 현장 방문을 자제하고, 되도록 온라인 추모관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관내 전통시장 재개장

영암군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임시 휴장했던 관내 5일장을 2월 2일 재개장한다.

영암군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10일간 휴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장 상인을 위해 재개장을 결정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시음 및 시식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휴장과 더불어 운영이 중단되었던 전통시장 이용객 도우미 '나르미' 운영도 나르미 전원 코로나 검사 실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전통시장

입구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발열체크, 손소독을 마친 이용객에게 인증 스티커를 부착시킨 뒤 입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과 시장상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체방역 및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다가오는 설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설명절 방역대책에도 철저히 임하고자 하니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전통시장 애용·물가안정 및 영광사랑상품권 홍보캠페인 실시



영광군은 설을 앞둔 지난 1일과 2일, 굴비골영광시장과 터미널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직자 200여 명이 영광사랑상품

권을 이용하여 제수용품 및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였다.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군민들에게 전통시장 애용 및 영광사랑상품권 사용 홍보를 위해 제작한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홍보캠페인을 펼치며 가격표시제, 물가안정, 지역상품권 애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0년도에 청년에게 지원된 청년 창업지원사업 점포에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청년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준성 군수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우체국 쇼핑몰서 농특산물 할인 행사 실시

품목별 최대 50% 할인...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무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무안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우체국 쇼핑몰에서 설맞이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우체국의 온라인 홍보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판로

개척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메인 배너 노출과 우체국쇼핑몰 내 무안군 브랜드관 개설로 지역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와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션, G마켓 등 외부 판매채널과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 행사를 연 5회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5일부터 실시중인 1차 판촉행사에 12개 업체가 참여하여 30여개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온라인 매출 1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